

시흥, 배출가스 저감 450억원 투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총력 ... 조기 폐차시 일정비용 지원책 마련

경기도 시흥시는 2009년 말까지 국·도·시비 451억원을 들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고 9월11일 밝혔다.

시흥시는 경유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할 경우 100만~816만원의 비용 가운데 개인 부담 10만~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모두 지원하고 LPG 자동차로 교체해도 416만~436만원 가운데 개인 부담 10만~2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또 조기 폐차할 때도 일정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06년 3300여대, 2007년 1000여대, 2008년 4200여대, 2009년 4900여대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경유자동차 1만3400여대이다.

시흥시는 2009년 말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천연가스(CNG)·저공해 경유자동차 등 배출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환경 자동차를 36대로 늘리기로 하고 1대당 200만~2800만원의 장치 설치비 등을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시흥시는 2006년 사업분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시흥=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저작권재(©)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9/11>